

기사입력 2013-06-25

◀ A N C ▶

서울에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들을 골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화가 노충현.

이번에는 한강의 여름과 겨울을 화폭에 옮겼습니다.

신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



◀ V C R ▶

눈 내리는 한강시민공원.

눈을 뒤집어 쓴 자동차들의 모습은 흔히 보던 풍경인데도 낯설게 느껴집니다.

눈 쌓인 산책로를 홀로 걷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.

푸른 빛을 띄는 풍경은 눈 내리는 겨울밤의 고요함을 연상하게 합니다.

빗물로 채워진 수영장, 불어난 물이 성나게 휘몰아치는 공원.

장마철 한강의 풍경엔 붉은빛이 감돕니다.

◀ S Y N ▶ 노충현/작가

"서울에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체험들 경험들 그것들이 이제 풍경과 만나면서 들어 난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"

익숙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들.

실제로 존재하지만 마치 이 세상엔 없는 곳인 것처럼 몽환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작가 노충현의 방식입니다.

전시에선 한강의 겨울과 여름을 그려낸 연작 25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

MBC뉴스 신지영입니다.

신지영 기자 shinji@mbc.com